

Shuvorattri



2015 April report

길태오, 김혜련, 정기용, 최현희

Shetu, Tuli, Shuvro, Khushi



목차

- 일간일정
- 팀원소개
- 화동내용
- 우리 이렇게 살아요
- 소감



월간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GBC library, Garo cultural museum library 방문 인터뷰	2 활동보고서 준비	3 활동보고서 준비 지오뵈살롬 호스텔 방문 Ymca picnic준비	4 슴산강 나무심기 Biplop 과 미팅
5 Easter day Ymca picnic준비	6 Ymca picnic 지오뵈살롬 호스텔	7 Youth meeting 정기회의	8 한국음식 나눔	9 Daharpara school lcs 배웅	10 ST.Candida Hostel 정기회의	11 Youth club Movie day
12 Youth club (korean)	13 Daharpara school	14 새해축제	15 힌두, 이슬람 커뮤니티 방문	16 Daharpara school 세월호 추모행사	17 <hr/> Edilpur ymca방문 Youth 들과의 만남	18 <hr/> Edilpur ymca 350ppm 브리핑 K-pop 공연
19 <hr/> Edilpur ymca →	20 Daharpara school Youth 편지전달	21 정기회의	22 벙글어 공부	23 Daharpara school Library 준비 (Youth room청소 책 분류)	24 Youth club(music)	25 정기회의 Youth club(art)
26 Youth club (korean)	27 Daharpara school Library 준비	28 정기회의	29 4월 돌이켜보기 5월 일정계획 활동보고서 준비	30 Homestay 시작!		

팀원 소개

BIRISIRI



팀원들에게 물었다. 'Shetu' 하면 뭐가 떠올라?

잠, 애기 바보, 그냥 바보, 영어, 배, 오궁, 쇼무자 (현지 튀김), 구렛나루(머리 자르러 갔다가 싹 밀림 ㅋ), 슈프, 텍살, 모뎀(4기가 중 948mb사용...), 얼음물, 애봉이, 쭈, 남미얹이(백 번 이상 들음), 역마살.

그가 밥 먹듯이 하는 말들

살 빼야 되는데, 너머시깬, 애들아 뭐 필요한 거 있어? 가기 싫음 가지마 내가 갔다 올께, 내가 갈까? 내가 갔다 올까? 뭐 카는데, 밥 먹자, 자자, 끝내자, 이제 끝, 기용아 좀 웃어, 기용아 웃기면 좀 웃어 (끝내 웃지 않았다고..)

4월 팀 내 역할 : 사진관리 (날린 사진들 돌려내..)



팀원들에게 물었다. 'Tuli' 하면 뭐가 떠올라?

까탈(잭 플랫), 과일, 음식, 짜, 물, 바나나, 과자, 감자, 고구마, 먹방, 돼지(매일 살찐), 다이어트(작심 3일), 줄넘기, 선생님, 일본, 중국, 한청희, 긍정, 일탈, 정신 줄 놓음, 댄싱머신(막춤추러 가실래요?), 신남, 조증, 컴퓨터, 할머니앓이♥, 단순, 진짜 생각 없음,

그녀가 밥 먹듯이 하는 말들

먹자, 먹고 싶다, 와~ 맛있겠다. 와~ 맛있다. 또 먹고 싶다. 너네 집에 까탈 나무 있어? 운동해야겠다, 살 빼야 되는데, 하자, 가자, (눈 치켜 뜨며)야, 아~오빠!, 아니거든, 맞거든, 아 그래요, 진짜요,

3월 팀 내 역할 : 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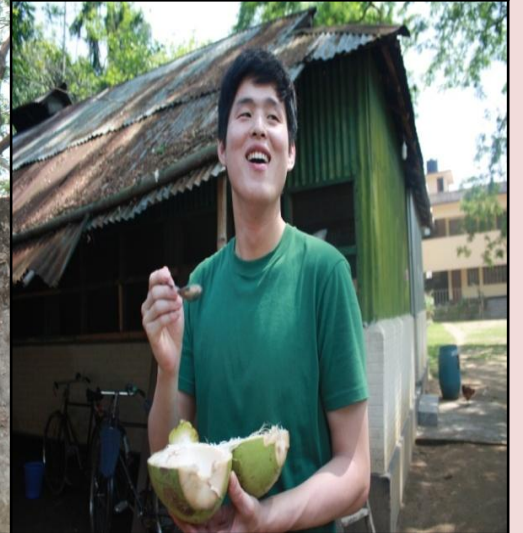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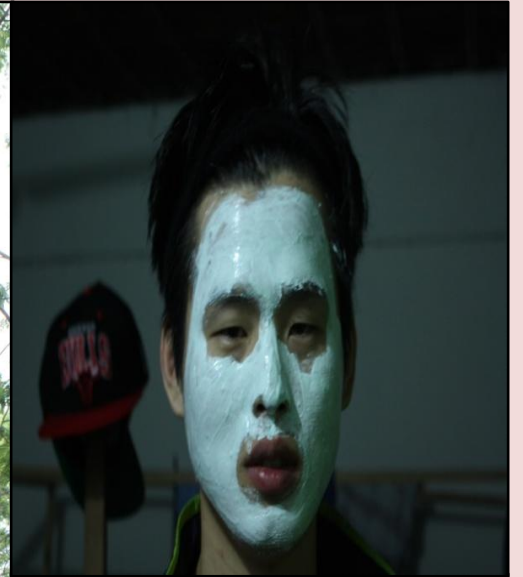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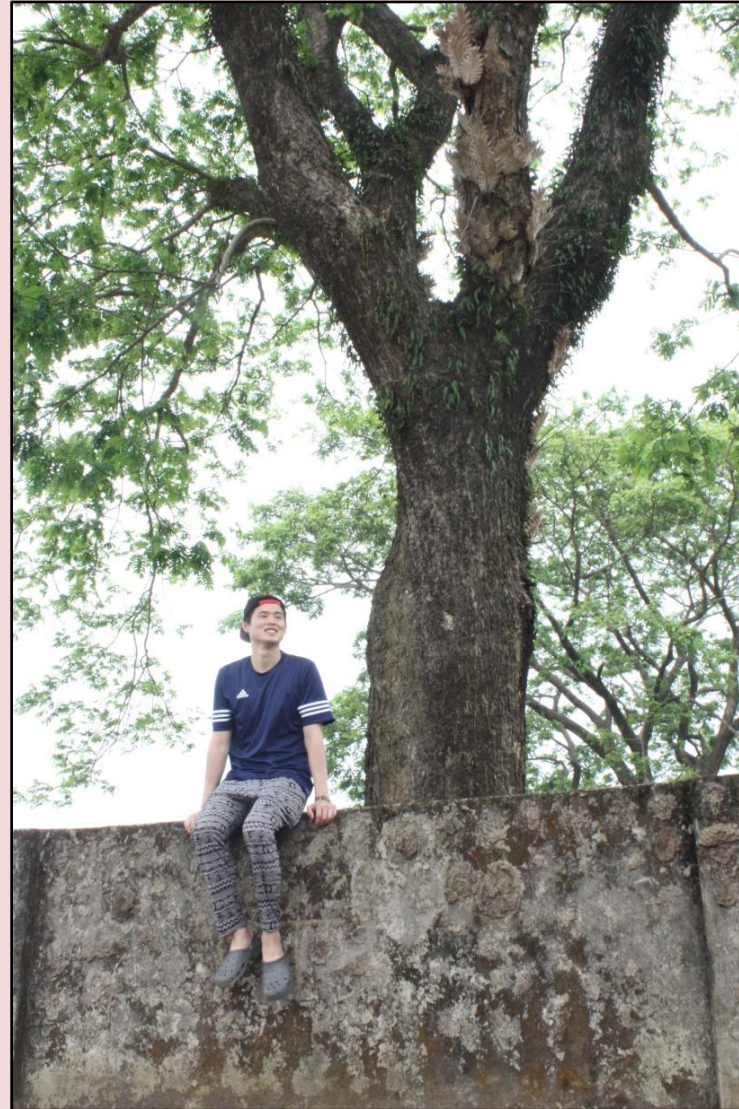
팀원들에게 물었다. 'Shuvro' 하면 뭐가 떠올라?

빵꾸, 피, 룡기, 브루스 리, 멍, 예쁜 여자, 무반응, 고독, 꾸꾸르, 고양이, 생각, 간사님, 달, 도이, 벙골어, 맞춤 옷, 크룩스(크룩스 구멍 뚫린 데만 발 탐ㅋ), 담배, 스피커, 먹기 귀찮음, 유도기술 3초, 애리샤, 엉뚱함, 미소, 나가수, 유튜브, 양파, 책, 박노해시인(시집 낼 기세)

그가 밥 먹듯이 하는 말들

아shit, 맨날 몸에 빵구 돌려, 담배피고 올게요, 브루스리~, 쉐시(끝), 이거 내가 생각해봤는데, 생각 많이 했던 말이야, 뭐 없어~~, 형 왜 자꾸 웃으라고 그래요.(마음으로 웃는다잖아)

3월 팀 내 역할 : 총무 (응..?날짜를 안 적었다고..?)



팀원들에게 물었다. 'Khushi' 하면 뭐가 떠올라?

환자, 관절, 종합병원, 사고, 절뚝, 비타민, 파스 (…ㅠㅠ), 봄비, 지속적인 땀짓, 자전거, 벌레, 눈물, 환 공포증, 기타, 철학, 정신연령, 노래, 나쁜놈, 일기(취미: 밀린 일기 몰아쓰기), 다이어리, 성경책, 멍, 맥스, 별, 비나무, 비, 자연

그녀가 밥 먹듯이 하는 말들

아 진짜 웃겨, 혜련아 운동 할꺼야? 괜찮아, 귀여워, 혜련아 이거 먹을래? 혜련아 이거 먹어, 혜련아 과자 사왔어(Tuli가 살 찌는 이유…하..), 아, 이게 좀~, 나 이거 했음 좋겠어, 우리가 건들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애.

3월 팀 내 역할 : 리더



Activity Region

BIRISIRI





GBC library, Garo cultural museum library 방문 인터뷰(15.04.01)

Ymca 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Garo cultural museum, GBC 도서관을 방문하여 사전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이용현황, 관리와 운영방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Ymca 내 도서관 설립 계획을 말씀 드리니 저희를 응원한다는 말과 동시에 당부하는 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도서관을 짓는데 새로운 것을 많이 알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오밋살롬 호스텔 방문 (15.04.03/ 04.08)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아이들! Ymca 근처에 위치한 지오밋살롬 호스텔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캐치볼과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아이들과의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러 온 ics, 그들이 준비한 문구와 옷 등의 다양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습산강 나무심기 (15.04.04)

이 곳 비리시리는 6월 우기철이 다가오면 습산강의 불어난 물로 인해 매번 크고 작은 피해를 입습니다. 우기가 오기 전, 강 근처에 제방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성스레 선물 포장 중><

Ymca picnic (15.04.06)

Ymca 식구들과 youth들 슈보라뜨리팀 모두가 함께 한 picnic! 오전엔 방글라데시의 인기스포츠 크리켓! 크리켓경기는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경기참여와 관람을 하였습니다. 오후엔 함께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며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Youth meeting (15.04.07)

Youth club을 시작하기 전, ymca 전체 youth들을 만나 club을 홍보와 동시에 도서관에 대한 토론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받은 모든 youth들의 목소리는 앞으로의 club운영과 도서관 설계에 계속 반영될 예정입니다. 미팅 종료 전, 티타임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youth들과도 한층 더 가까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

한국음식 나눔 (15.04.08)

매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비리시리 ymca식구들을 위해
팀원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
닭갈비, 비빔국수, 주먹밥을 맛있게
요리해 Y식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맛있다고 해주시는 모습에 팀원 모두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하파라 수업 (15.04.09/13/16/20/23/27)

너머~시깔~^^ 9일 art 수업을 시작으로 주 3회 다하파라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마냥 어렵기만 했던 수업도 잘 따라와주는 아이들이 있어 힘이 났고 이제는 자신만의 수업노하우를 찾는 등 전에 비해 훨씬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아이들과도 그들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만큼 친해졌답니다. ^^

* NFPE 사진 더 보기





ST.Candida Hostel방문 (15.04.10/24)

슈보라뜨리팀은 주 1회 ST.Candida Hostel을 방문해 태권도수업과 한국문화(노래, k-pop댄스)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아이들, 어이!를 외치며 열심히 태권도 동작을 따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무더운 날씨도 잊게 만들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Youth club (15.04.11/12/24/25/26)

Youth들과 함께 놀며 서로 배울 수 있는 시간 Youth club! 일주일에 3회 진행되는 club은 music, Korean, art 총 세 개의 클럽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슈보라뜨리팀은 매 시간 Youth들이 흥미를 가지고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club주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단 youth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기에 매 활동 때 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_^

새해축제 (15.04.14)

방글라데시의 새해 ‘뽀헬라보이삭’ 축제가 있는 날! 이 날 하루, 슈보라뜨리팀도 뜨거운 축제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Youth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간식도 먹고, 재미있는 게임, 다양한 공연과 방글라데시 전통 스포츠 ‘하두두’를 관람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슬림커뮤니티 방문 (15.04.15)

자전거를 타고 십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무슬림커뮤니티.

그 곳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만의 전통 양식, 혼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슈보라뜨리팀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다름을 느꼈고, 좀 더 넓은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추모 (15.04.16)

4월 16일 세월호 1주기를 맞았습니다. 이 날 팀원들의 왼쪽 가슴엔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오후 4시 16분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을 아로새겨 그날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Edilpur YMCA방문 (15.04.17/18/19)

CNG, local bus, 리샤를 번갈아 타며 무려 4시간에 걸쳐 도착한 그 곳, 푸른 자연이 광활하게 펼쳐진 이딜푸르에 도착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youth들과의 마을탐방을 시작으로 350ppm브리핑, 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 즐거웠던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 Edilpur 사진 더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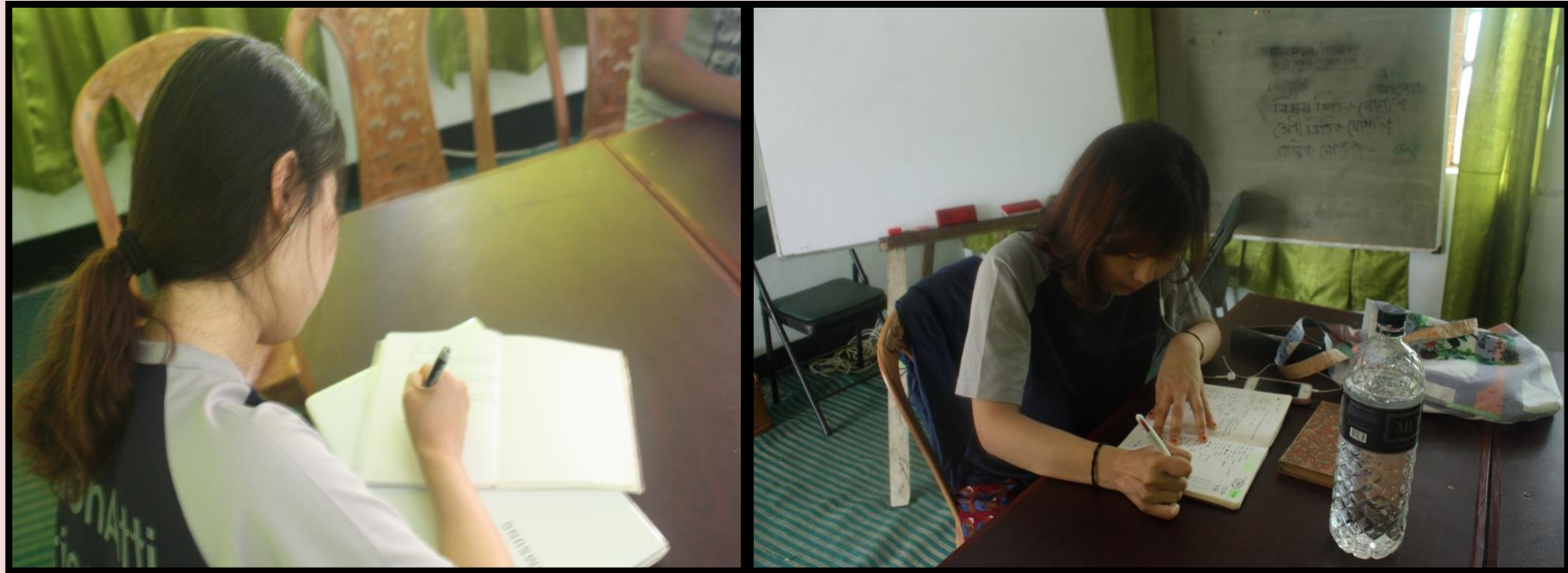


Youth club 편지전달 (15.04.20)

지금 만나러 갑니다!^^ Youth club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딱딱한 편지형식이 아닌 색종이에 정성스레 편지를 쓰고 예쁜 하트를 접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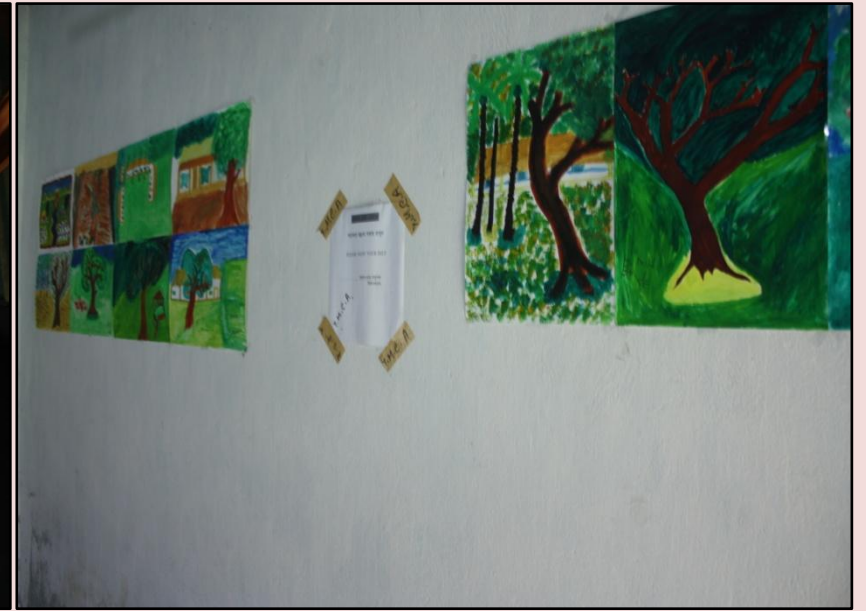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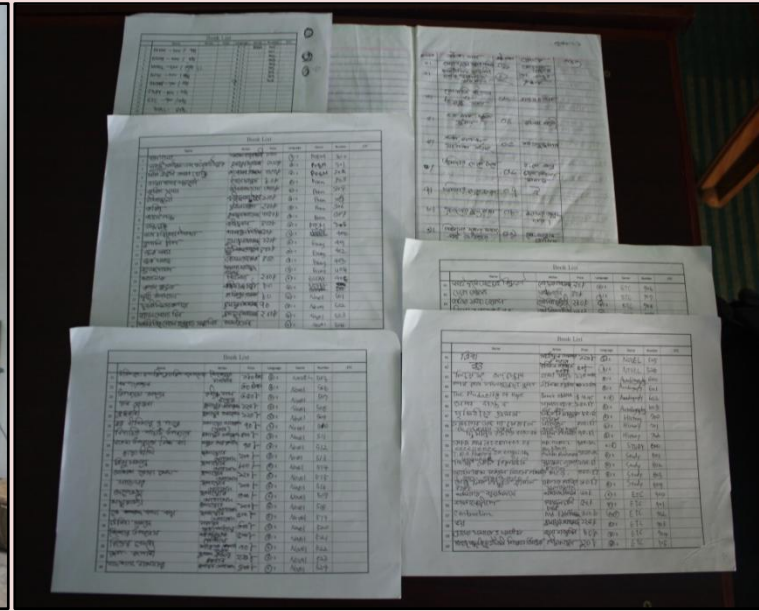
Youth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그들을 만나 얼굴도 익히고 편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달 된 것인지 youth들의 참여율 또한 높아졌습니다^^





벵갈어 스터디 (15.04.22)

방글라데시 언어인 벵갈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슈보라뜨리팀 지금은 열공중^^ 코디인 루벨이 이 날은 우리의 벵갈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다하파라 수업에서 자주 쓰이는 벵갈어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본대화과 용어를 공부하였습니다. 돈노뵈트^^



Youth room청소 (15.04.23)

도서관 만들기 그 두 번째! Youth room청소와 도서분류작업! 도서관의 주인이 youth들인 만큼 youth들과 함께 깨끗하게 청도 하고, 기존의 도서와 구입한 도서를 모두 체크해 분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떤 도서관이 만들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

우리
이렇게 살아요

BIRISIRI



마니또 게임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YMCA에서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아 팀원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진행했던 마니또 게임! 우리 팀 제 5의 멤버 브루스리가 우리에게 각자의 마니또를 선정해주었다. 그리고 우린 2주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마니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게임 마지막 날, 다른 팀원이 자신의 마니또를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은 크게 과자파티를 열어야 되는 벌칙이 주어질 것이라는데...

★ 마니또 관계도 ★



Tuli



Shetu



Rubel



Shuvro



Khushi



마니또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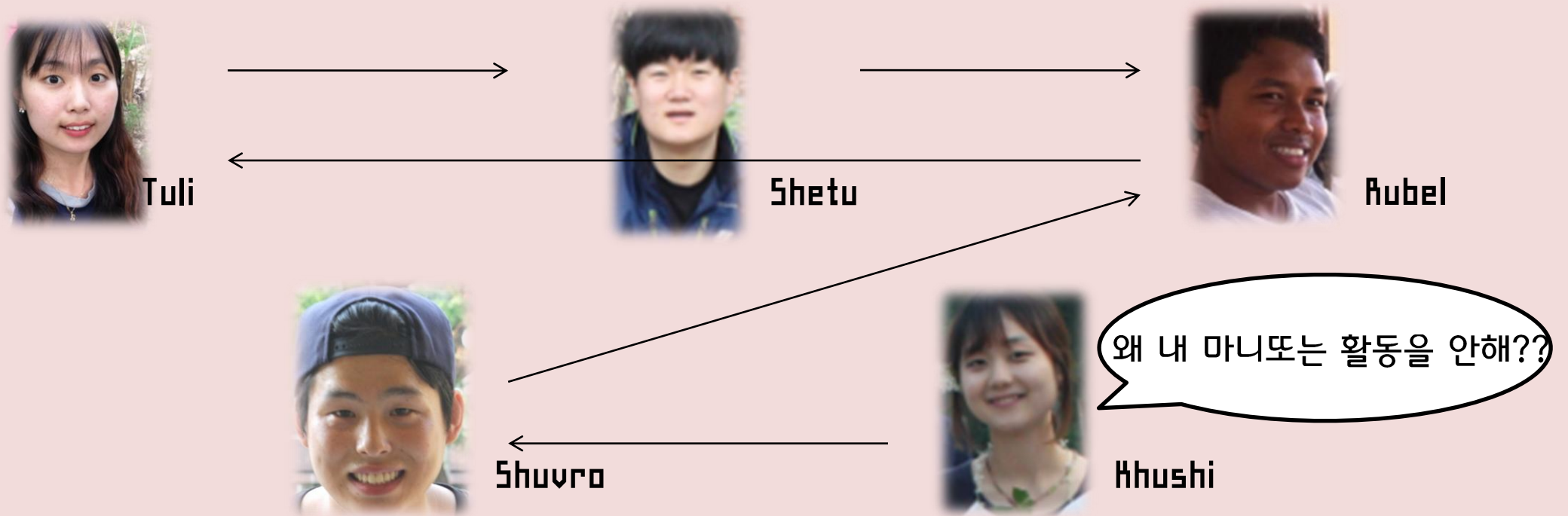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가? 다시 한번 마니또 관계도를 살펴보자.



그렇다... Khushi의 마니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그리고 그렇게 우리 브루스리의 귀여운 실수로 마니또게임을 마쳤다.

그날 밤, 슈보라뜨리팀은 달짝지근하면서도 때론 바삭한 미스터쿠키로 진짜 행복을 배웠다고...

베 이 비 시 터 Shetu의 "누가 누가 더 귀엽나"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그램 "누가 누가 더 귀엽나"

안녕하세요 4월 기획을 맡게 된 아기 선별 전문가, 아기 사냥꾼 셰투입니다.

오늘 저는 비리시리의 초절정 큐트 아기들을 한 명씩 소개 해드리고 아기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인기 절정의 아기들을 만나보시고 제가 모두의 밤잠을 설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 똥똥한 아기들(특히 볼)만 좋아하는 관계로 다소 편향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음(제가 똥똥해서 그러는 건 아님)



맥스 (1살 3개월 동생)

이름 : 맥스 (1살)

특징 : 터질듯한 볼과 촉촉한 눈망울이 특징이며 귀여운 외모로 슈보라뜨리 팀 전체를 사로잡은 초절정 큐트 맥스!

특히, 넘어 올 듯 안 넘어오는 맥스의 밀당은 여러사람들의 애간장을 다 녹였다고 한다. (특히 나... 흑흑) 후에 많은 라이벌들이 나타났으나 굳건히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아기들의 왕

귀여움 : ★★★★★★

똥똥함 : ★★★★★☆

애교 : ★★☆☆☆

총평 : 애교는 없지만 특유의 웃음과 귀여움으로 모두를 사로 잡음. 특히, 맥스 앞이는 어떤 약도 없다고 한다.

베이비시터 Shetu의 "누가 누가 더 귀엽나"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이름 : 스푸띠 (1살)

특징 : 혜성처럼 등장한 아기들의 신성 스푸띠.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다 갑자기 터질듯한 허벅지와 함께 우리를 모두 심쿵하게 만든 귀염둥이. 그의 볼과 허벅지를 만져본 사람들은 모두 전염병처럼 스푸띠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귀여움 : ★★★★★★

똥똥함 : ★★★★★★★★★★★★★★★★★★(공간부족)

애교 : ★★☆☆☆

총평 :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스푸띠, 개인적으로 걷기시작하며 살이 빠질까 많이 걱정된다. 필살기는 4단 합체 똥똥 팔 발사



스푸띠 (1년 2개월 슈보 동생)



롱 (2살 세트 동생)

이름 : 롱 (2살)

특징 : 비리시리 아기들의 언니, 누나인 롱. 적절한 통통함과 볼 크기를 만회하는 춤과 노래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 특히, 초고단수의 밀당은 모두를 그녀의 높으로 빠지게 하는데...

귀여움 : ★★★★★★★

똥똥함 : ★★★★★☆☆

애교 : ★★★★★

총평 : 아름다운 한 폭의 무용을 연상시키는 춤 사위는 가히 최고라 할 만하다. 폭풍 애교와 안길 듯 도망가는 밀당 실력은 덤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숙소 전경



식당



샤워실



슈브로 침대

슈보라뜨리 팀의

러브 하우스



숙소 문 앞



부엌



화장실



쿠쉬 침대

정든 YMCA를 떠나면서 (5월 홈스테이 시작!)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5월 1일부터 그 동안 지내왔던 YMCA를 떠나 홈스테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 2개월 간 매일같이 맛있는 밥을 해주시던 마, Ymca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항상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시던 마 등 밤낮으로 우릴 지켜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전달해 드렸어요. 내일이면 다시 Y에서 만날 분들이지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정든 Y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돈노뵈!

이달의 발로본두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Brusly

이 달의 발로본두 브루스리!!
위 사람은 언제나 쇼모셔나이! (문제없어!)
를 외치며 팀원들에게 긍정의 활력소를 불
어 넣어주고 있으며 특히 매력적인 한국어
구사로 모든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이 달의 발로본두로 선정합니다.

강한! 힘찬! 슈보라뜨리팀의 제 5의 멤버..?

이달의 발로본두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Diana

이 달의 발로본두 Diana!!

위 사람은 털털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Youth들의 여장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특유의 친밀감과 지치지 않는 무한체력으로 팀원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기에 이 달의 발로본두로 선정합니다.^^!

April Episode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 사건번호 : 1723호
- 피해자 : 슈브로 (한국이름 : 정 기 용)
- 시간 : 4월 3일 오후 1시경
- 장소 : 비리시리 YMCA 화단 펜스
- 사건전개 : 슈브로는 호스텔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이 화단 안으로 들어가버린 것을 보고 재빨리 공을 찾으러 화단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공을 가지고 나오던 중 사진 속, 뾰족한 펜스에 민감한 안쪽 허벅지가 찍힌 사건
- 당시 심정 : 너무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그것보다 상처부위가 너무 애매해 병원에 가기가 무서웠어요. 유스들이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냅다 바지를 벗으래요.. 저는 괜찮지 않은데... 병원에 갔더니 속옷도 벗으래요... 의사선생님이 너무나 미웠어요..
- 결말 : 슈브로는 3바늘을 꿰맸고, 2주일 정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상처는 다 나았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과 흉터가 남았다.

April Episode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물갈래 지는 모습〉

- 사건번호 : 1173
- 시간 : 4월 25일 오전 11시경
- 장소 : 비리시리 YMCA
- 사건전개 : 지진이 일어나기 전, 우리는 미팅룸에서 정기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건물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팀원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왔던 사건. (슈브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갔다는 건 비밀)
- 당시 심정 : 태어나서 이런 지진을 처음 느껴봤어요. 팀원 들도 마찬가지로였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 너무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이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팔지진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슈보라뜨리팀의 고민1 - 자전거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우리의 이동수단은 자전거다. 어딜 가든 우리는 항상 자전거를 이용한다. 그러나...다하파라를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다.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지면에, 시장에 들어서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앞 뒤로 엄청난 속도와 굉음을 내며 달리는 트럭들과 함께 달리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위험하다. 다들 한국에 있을 때는 자전거 좀 타본 실력들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리샤에 부딪혀 바지가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져가며 적응해나갈 때쯤 사고가 일어났다. 자전거를 타고 다하파라를 가는 길에 혜련이가 중심을 잃어 쓰러졌다. 그런데 뒤 이어 따라오던 슈브로는 혜련이 자전거를 밟고 하늘을 날았고, 세뚜는 그냥 넘어졌다. 혜련이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남은 팀원들 모두 YMCA로 복귀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팀원들 모두 놀란 하루였다.

쿠쉬는 발목이 좋지 않아 계속 다하파라를 못 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맘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자전거를 탈 수 없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하는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다. 비리시리 Y측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라 개인 돈을 사용해서라도 가고 싶지만, 그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자전거를 타는 것에 적응되어 부주의한 우리 탓도 있지만 다하파라를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하고 멀기만 하다.....

슈보라뜨리팀의 고민2 - Edilpur를 다녀오면서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이딜푸르를 때 타지 않은 느낌이라까?

비리시리 에 후에 이어온 때랑은 다르게 정말 열렬한 화대를
반아서 사실 너무 놀라아어. 비리시리에는 ID가 화동하고, 라오아
띠가 화동하지 크너이 되어자아. 그에 따라 긍정적이 마은 변화
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문제들도 보이고 이어. 이 문제들을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다 회의감에 빠지기도했는
데 이딜푸르를 그 모든 것을 이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비
리시리도 처음에 이래게지 하며 첫 기수들이 부러기도 해어.



나는 고민이라기보다 스스로 다짐을 하게 만드는 계기를 심
어준 거 같아. 비리시리에서 보지 못한 내 모습을 Edilpur에서 보
면서 이런 내 모습도 비리시리가 이어기에 변화된 나의 모습이 수
도 있는데 나 스스로 이산함에 소고 이는 거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
어어어. 돌아오는 날 아침, 비리시리가 너무 생각나고 부끄럽고,
youth들이 너무 보고싶어어어.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기
사람들과 신나게 놀고 그들과 정---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게다라는 생각 밖에 없어!^^

나도 Edilpur에 가서

마이 놀라어. 대자역은 물론 너무 친절하 그의 사람들과까지
그 그의 때 묻지 않은 스산함이 나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와게든.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불과 며칠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 묻히고 온 거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어. 시기하 전자기기에 각종 문제들을 보여주며 지
그까지 그러 거 어이 잘 사더 사람들에 대해 미폐마 끼치고 온 거 아
니까 걱정이 돼어. 그래서 우리가 자아화동을 하려고 온 5개원이 무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에
문제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문 때를 나누는 거 아니까
고민을 해어.



나는 Edilpur의 자연이 가장 기억
에 남아. 오토리샤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좌우로 펼쳐져더 파이어플
마드과 바나나 가든를 보며 마치 자아다크메터리의 한 장면에 들어가 느낌
이어어. 태어나서 처음 보 어마어마하 크기의 레인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리치
나무등등, 사방으로 초록 초록 밖에 어는 대자역 속에서 너을 이어더 거 같아. 그러
곳에 사는 youth들이 부러워어. 그리고 Edilpur 사람들도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
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적이 나다가 다시 정기가 들어오며 모두들 바스를 치고 화호성음
부르고 해어. 짜은 시기가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지식을 나눈 youth들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기도 했고, 나도 라오아띠가 처음 비리시리
차오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보아어. 크너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여을까?

두 나라 보고 있나 (동티모르팀)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너네 에메랄드 빛 바다에서 허세 부린다며?
훗, 난 너희 여행객들인 줄 알았어 특히, 김환용 단원님 그 몸으로 수영도 하드라?
별로 바..부럽지 않아..

우리에게 푸른 들판과 습산강이 있거든...♥

특히 뭐?? 에어컨???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촛불 켜고 샤워는 해봤으려나 모르겠네. 무튼 너희 국
내훈련 다시 받아야겠어 조심해

동티모르팀 보고있나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피자 ㅏ...마..맛있겠다...혹시 착각할까봐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우린 절대! 부러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햄버거와 피자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 맛있는 열대과일과 백 여가지 종류의 카레가 있거든. 애네들은 우리들의 더운 날씨를 이겨내 줄 한줄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랄까...?

두 나라 보고있나 (인도팀)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인도팀 잘 지내고 있지? 우린 잘 지내고 있어. 인도팀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 3월 활동보고서가 올라오자마자 다운받아서 봤어. 잘 지내고 있는거 같아서 보기 좋더라 다운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다른 팀들이 어떻게 지내나 너무 궁금했거든.

환경의 날을 맞아 '350PPM' 준비 잘 하고 있지? 우리는 '350PPM' 생활을 실천하고 있어 몸은 떨어져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하고 있다니 너무나 그대들이 자랑스럽고 그리워지는 순간이다. 기르가호 바다? 정말 이쁘더라 여기 방글라데시 비리시리에는 슴산강이 있어. 슴산강에 앉아서 대자연을 보고있으면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랄까?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 산바람, 들바람, 강바람이 있어 너무나 포근하고 시원하단다. 아 나영아 차 바퀴에 깔린 발은 괜찮니? 나영이는 씩씩하니까! 인도팀의 IH생활을 보고 살짝 놀라기는 했는데 그냥 얼뵤(조금)... 머 부러운 건 하나도 없어.. 셋띠(정말).. 생활환경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고민이 다를 테니. 아 거기에서 손발래 한다고 그러더라. 우리도 손발래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승희는 손발래 할 줄 아냐,;? 우리는 세탁기를 쓰지 않아. 우리는 손이 있거든 우리 손이 세탁기야.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던데 그거 세뚜(태오)한테 줘. 세탁머신이거든. 아무튼 아프지 말고 잘 지내다 와 . 너무너무 보고 싶은 인도팀 (주저리 주저리...) 짤리에자우! (cheer up!)



P.S 승희야 사랑해♡

(이거 진짜 함성이다. 말도 안돼)

개인 소감

BIRISIRI



Shetu _ 태 오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4월도 갔다. 지난 4월의 난 고민이 없는 것 그게 고민이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생활에 대한 고민도 그냥 하면 되지 무슨 고민이냐고 생각했고, 적어도 3월의 난 진짜 그랬다. 일단 부딪히고 보는 행동파적인 성격의 내 모습. 그래서 난 왜 그게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그러다 순간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믿었고, 어느 정도 생각도 하고 산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다. 그때였다. 지금까지 내 삶이 조금씩 부정되는 기분이 느껴졌다. 혼자 우물 속에 갇혀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큰다면 나도 그들처럼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사회가 보여 주는 대로만 보며, 그걸 지식이라 믿고 살았다. 그래서 어떤 걸 내가 고민해보는 것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다. 이면을 알아 보려는 시도는 아예 하지 않았고, 그게 맞는지도 모른 채 무언가 안다는 것에 그냥 만족해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고민, 생각이 내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난 내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항상 글을 쓸 때면 내 진심을 보여주기보다 좀 더 예쁜 글로 보기 좋은 글로 만들 생각만 했었다. 이런저런 핑계로 책도 멀리했었고 사색도 멀리했었고, 돌이켜보니 참 못난 사람이 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시점에서든 내가 이렇게 변할 것 이고,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는 말은 할 수 없다. 그냥 앞으로는 사소한 것 하나부터 주관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노력해 볼 것이다.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모르지만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이토록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지는 않았겠지.) 느리지만 천천히 발전하는 내가 되고 싶다.

Tuli _ 혜련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4월도 금방 지나갔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시간만 흘렀고 나만 변한 것 같다. 지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 모든 사람이 인연이 될 수 없다, 인연이 될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 내 곁을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 곳에선 아니다. 그래서 나도 변한 게 아닐까? 비리시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두 달이 지난 만큼 그들과 정도 많이 들었다. 이 곳은 나 스스로 마냥 차갑기만 하던, 모든 것에 무덤덤하던 내 마음을 차츰 녹여주고 있다. 한번은 이런 내 모습이 낯설어 여태껏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다행이다. 얼마 안 살았는데 이제라도 깨달아서 .^^ 가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한국생각을 한다. 예전 같았음 취업생각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들과의 잠깐의 헤어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아쉬울 뿐이다. 인연을 잇고 잠깐의 헤어짐을 반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마찬가지다. 있을 때 더 잘할걸,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볼 걸 하는 아쉬움이 늘 남듯... 그래서 요즘은 정말 즐기려고 한다.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여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진짜 우정을 경험하고 만들어 가고 싶다. Tuli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반가운 지 모른다. 이젠 내가 먼저 달려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지.

Tuli _ 혜련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지내다 보니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다. 또 표현은 안 했지만 팀원들한테도 너무 고맙다. 초반엔 국내훈련 때 귀가 닳도록 들은 ‘다름’을 이해하라는 것을 머리로만 딱시게 이해하고 행동은 그러지 못해 팀원들과 지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 답답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팀원들도 그러려니 한다. 머리로도 행동으로도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 다른 팀원들로부터 정말 많이 배운다. 또 팀은 내가 우선이고 자신 밖에 몰랐던 나에게 공동체라는 테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나랑 다른 팀원들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그냥 좋다. 앞으로 남은 기간 다름을 더 딱시게 이해하면서 팀원들과 잘 살다 가야겠다.

지금 W곡선의 내 위치는 100의 95정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다. 사람들을 만날 활동이 계속 기다려지게 된다. 너무 높아 언제 떨어질 지 모르는 지금의 내 위치 역시 하나도 두렵지 않다. 하향곡선을 찍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더 올라갈 준비가 되어있다. 그럴수록 더 즐기려고 한다.

다음 달, 과일이 그렇게 많이 열린다던데 우리 집 과일로 Youth들 좀 꼬셔봐야겠다.

Shuvro _ 기 용

팀원 소개

활동 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산에서 나와야 산이 보인다”라고 했던가
한국에서 나오니 비로소 한국이 정말 살기 편안한 나라임을 느끼고 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은
“현대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편하게 사는 것인가?”
“나의 편안함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등한 비교란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나는 여전히 한국인의 눈으로 비리시리를 보고 있다.
한국적인 생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했다...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아 여기 사람들은 원래 그렇지” 하며 생각의 차이를 느꼈고, 다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이 맞는 것이고, 최선이라 생각한다.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 않을 뿐이지, 난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내 생각이 맞고, 그 사람의 생각 역시 맞는데...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내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면, 내가 너무 싫어진다.

주위를 둘러봐도 모순투성이다.

Khushi _ 현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방글라데시에 오기 전 나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졸업을 앞두고 막막하고 답답했던 모습,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있고 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모습, 회색도시의 차가움 속에서 홀로 서있는 것 같아 외로웠던 모습. 나름대로 계속해서 대안적인 삶에 대해 고민했지만 현실의 무게를 감당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라온아띠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길, 한 방향만 바라보기 보다 다양한 길을 직접 걸어가보는 ‘딴짓’을 추구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줄 세우기에 제대로 반항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은 나를 행복의 나라, 방글라데시로까지 이끌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흐릿해진 지금 나는 비리시리의 평화로움에 매료되어있다. 별과 나무와 풀과 자연 속에서 나는 평온함을 느낀다. 어떤 가식이나 어떤 이미지들은 벗겨지고 본래의 본디의, 마치 생얼처럼 날 것 그대로의 나와 마주친다. 저녁 7시에 별이 뜨면 이제 북두칠성은 단박에 찾을 수 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길도 달을 보며 걷고 반딧불이에 감탄한다. YMCA에 앉아서 바라보는 레인트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나뭇가지, 잎을 뜯어먹는 염소, 맨날 먹고 싸는 소, 누워있는 꾸꾸루,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벌레소리, 풀이 바람에 날리는 소리, 비오기 전 개구리의 노랫소리 등이 더위에 지친 나를 위로해준다.

4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의 고민은 “어떻게 더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곳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을까?”이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조금씩 ‘내가 라온아띠로서 비리시리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저 나는 이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추억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런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바로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Khushi _ 현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4월 초에는 4,3사건(기용이 다친 날)이 있었다. 갑작스런 사고에 눈물이 터졌고 다들 말은 안 했어도 놀래고 걱정도 많이 했다. 하지만 슈브로는 전혀 힘든 기색 없이 잘 회복하였다. 그때 많은 현지 사람들이 슈브로의 안부를 물으며 걱정해주었고 우리가 어딜 가든 슈브로를 찾았을 때, ‘기용이는 이들에게 벌써 좋은 친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부러웠고 고마웠다.

그쯤 부활절이었다. 비리시리의 가로족은 부활절에는 happy easter! 이라고 서로에게 축하인사를 건넨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던 youth 멤버, Diana에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인사했다. 그런데 나의 눈과 마주친 다이아나는 갑자기 씩씩하게 걸어오더니 나를 꼭 안아주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포옹 한번에 마음이 녹아버렸다.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던 내 마음을 알아챈 건지 다이아나가 내 눈빛을 읽은 느낌이었다.

이덜푸르에 갔을 때는 Amy라는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만나자마자 나에게 마음의 문을 확 열었다. “너는 나의 sister”라며 함께 웃고 떠들고 이덜푸르의 자연 곳곳을 구경시켜주고 춤도 췄다. 떠나기 전날 밤, 네가 내일 간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혹시 동생 있냐고 물었다.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누군가가 너에게 동생이 있냐고 물어보면 다음부터는 여동생, 에이미도 있다고 말해달라고 했다.

Khushi _ 현희

팀원소개

활동내용

우리 이렇게 살아요

소감

진심 어린 눈빛과 질문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좋아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은 아주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다리를 삐어서 다하파라를 못 가게 된 날, 혼자 YMCA에 남아있는데 늘 자신은 강한~! 힘찬~! 남자라고 외치는 귀여운 브루슬리와 뿔룩과 브로싯을 만나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짜를 마셨다. 그러던 중 전날 Y office에서 일하시는 온뚜 아저씨한테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말을 뿔룩이 말한다.

“너는 developed country에 살아서 좋겠다. 그렇지?”

그런데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Developed country라면 정말 좋은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나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기록, OECD 자살률 1위를 말한다.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옹아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국에서 20대로 산다는 것은 때론 숨막힐 만큼 버겁기도 한다는 것을..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혹은 물질적인 것 하나가 가장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가족 간, 친구 간의 친밀함과 자연이 주는 크나큰 위로와 감동을 우리는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마주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느낀다면 무심하게 지나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매 순간을 그렇게 진지하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심을 잊지 않고 싶다. 오롯이 이 마을과 사람들을 더욱 느끼고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 말이다.

사진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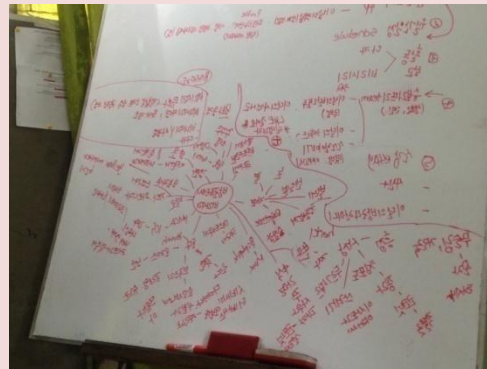












이름의
뜻을
한마디

সমস্যা নেই
shomoshanai
[쇼모셔나이]: 문제없어~!



আবারদেখাহব (아바르 데카 호바)

드림에 다시 만나요 ^^